

프랑스 르몽드, 전남 해조류 집중 조명 '눈길'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요리하는 한국' 보도 해남·완도·신안서 김·다시마 생산과정 소개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 몽드(Le Monde)'가 해남, 완도, 신안 등 전남 청정바다의 해조류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르 몽드에서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요리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해조류에 관한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7월 프랑스 르몽드의 레미바루와 줄리앙 골슈타인 기자가 해남, 완도, 신안 등 전남 청정바다를 찾아 생생한 해조류 양식 현장을 둘러봤다. 완도 해역을 돌며 김과 다시마 양식 및 양식 생산 과정을 사진에 담았다.

이어 전남지역 김 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김 제품을 맛봤다.

해남 소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조류연구센터를 방문해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해조류 품종 연구 개발 과정과 성과

도 취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당시 직접 레미바루와 줄리앙 골슈타인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어릴 적 김을 직접 수확하고 김바구니를 만들어 먹었던 경험을 소개했다.

또한 전국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전남산 김 성분의 우수성과 위상을 설명했다.

레미바루와 줄리앙 골슈타인 기자는 프랑스가 자국에서 생산한 해조류의 대부분이 가축사료와 공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식용 해조류를 생산하고 있다며 해조류의 활용 방안과 가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해조류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생산량이 8만톤에 그쳤으나, 최근 해조류 섭취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심이 늘면서 해조류 양



청정바다인 완도해역에서 어민들이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가 있는 해조류를 채취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식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번 르 몽드의 보도는 한국의 친환경 해조류 양식 과정과 함께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해조류의 우수성, 첨단화된 김 가공기술 등을 유럽시장이 주

목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르몽드지 김 보도와 발맞춰 전남의 청정바다에서 연간 200만톤 이상이 생산되는 해조류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나

갈 계획"이라며 "프랑스 등 유럽시장을 겨냥해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구축과 함께 고품질 해조류 양식 생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이용섭 시장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역량 결집"

광주시, 24개 공공기관장 회의

광주시는 2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사진) 시장 주재로 24개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각 기관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상호간 공유하며, 소통과 협업체계

를 공고히 했다.

현안 업무 논의에 앞서 광주그린카 진흥원은 '광주자동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주제로 우수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섭 시장은 공공기관장들에게 광주형 일자리모델에 이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AI Hub

City Gwangju)' 만들기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시켜줄 것과 21세기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으로 '혁신'을 거듭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산업불모지인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들을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



이용섭 시장

심인 인공지능이다"며 "추진위 출범, 인공지능 테스트 코포스(T/F)와 인공지능(AI) 사내대학 운영, 광주 과학 기술 원

(GIST) 인공지능 대학원 선정, 실리 콘밸리 방문 등 연이은 성과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광주형 인공지능비즈니스모델을 성공시켜대

한민국을 인공지능 4대 강국으로 우뚝 세우는 것이 지금 광주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며 "23일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AI클러스터 포럼에도 공공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2월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기관별 성과창출 결과를 보고받겠다"며 "마지막까지 열성을 다해 그동안의 노력이 값진 성과로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

청소년 데이트폭력 예방극 전남여성가족재단, 순회 공연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성별·계층을 막론하고 사랑과 폭력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하고 경계토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데이트폭력 예방극을 운영한다.

데이트폭력 예방극은 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웹툰 작품, 도움 기관 등 정보를 담아 공연 전에 전시하고, 연극을 관람한 후 토크콘서트를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21일 담양한빛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9일 나주문명중학교, 30일 목포해인여자고등학교에서 이뤄진다.

청소년의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연극 '다함께 차!차!차!'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거나 혹은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성차별 상황, 데이트폭력의 위험을 평범한 생활의 모습으로 담아냈다. '불합리한 상황을 유쾌·상쾌·통쾌로 차! 버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극 시나리오는 제3회 차범석 희극상을 수상한 '푸르른 날에', 전남도립국악단 창극 '개벽' 등을 집필하고, 현재 목포KBS 방송작가로 활동하는 정경진 작가가 창작했다.

공연은 지역의 스토리를 극화해 연극·영화·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예방하기 창작열전 시리즈 8개를 완성하고,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 공연 '그대 빛나는 시대의 별' 등을 공연한 문화창작집단 그라제에서 진행한다.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이번 데이트폭력 예방극과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ACTED(연극과 교육의 합성어)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예술을 결합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연령, 성별, 계층 등 모든 세대의 성평등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올해 제23회 광주시 건축상 비거주부문 금상을 수상한 남구 양림동 '아크레타 양림'.

광주시 제공

광주시 건축상 금상에 '아크레타 양림'

비거주부문 수상... 30일부터 전시

올해 관내 우수한 건축사와 건축물을 선정하는 제23회 광주시 건축상 금상에 남구 양림동 '아크레타 양림'이 선정됐다.

광주시가 후원하고 광주시건축사회 주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27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건축사, 대학교수 등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비거

주부문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과 주거부문에 은상 1점, 동상 1점 등 총 6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비거주부문 금상을 수상한 '아크레타 양림'(설계:㈜건축사사무소에코플랜 / 시공:인벤티라건설)은 기존에 있는 한옥과 감나무, 굴목들을 잘 살려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고,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탄생시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어 광주시의 선결 과제이기도 한

구도활성화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거주부문 입상작으로는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힐사이드 양림'(설계:㈜포유건축사사무소 / 시공:㈜한가람건설)이 은상을, 동상에는 동명동에 위치한 'Bldg. REGAON'(설계:㈜리더온 건축사사무소 / 시공:정도건설)과 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마곡공간'(설계: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 시공:건축우건설)이 선정됐다.

주거부문에서는 은상에 서구화정동에 위치한 녹원재(설계:엘에이엔(LAN) 건축사사무소 / 시공:지국

섭)가 선정됐고, 동상에는 광산구 수안동의 '수안동 주택'(설계:㈜건축사사무소 플랜 / 시공:선호수주식회사)이 선정됐다.

건축상을 수상한 모든 작품에는 건축상 동판을 제작해 부착하고, 설계건축사와 시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리는 제1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전시된다.

한편 광주시 건축상은 건축문화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89년부터 우수한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와 시공사를 선정해 건축상을 시상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광주시에서 광주건축사회로 이관돼 시행되고 있다.

김정대 기자

전남도, 녹색자금 지원 16억 확보 '전국 최다'

전남도는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0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소가 선정돼 복지시설 나눔숲과 무장애 나눔길을 추진한다.

녹색자금사업은 복권 수익금을 배분받아 장애인·저소득층·노약자 등 사회·경제적 배려계층의 거주 공간 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누구나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전남도가 확보한 사업은 7개소 16억 4000만원 규모다.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거닐도록 목재의 자 등 산림체험 활동시설을 설치해 산림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는 순천시 순천향림실버방, 곡성군 예텐어린이집, 강진군 강진사랑의집, 강진군은 빛마을이,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는 목포시 삼학도 무장애나눔길, 광양시 서산 무장애나눔길,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무장애나눔길이 선정됐다.

박형호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쉼터와 산책 공간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심신 치유에 기여하는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며 "연령에 관계 없이 숲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시간-공간속으로' 전시 내달 1일까지 전남도청갤러리

전남도는 1층 운선도를 전남도청갤러리에서 내달 1일까지 12일간 이순행 작가의 '시간-공간속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해바라기를 소재로 한 20여 작품을 선보인다. 햇살에 비친 오래된 담장의 담쟁이덩굴과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녹슨 철문 등 자연의 감동적 인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이순행 작가는 전남지역 중견 예술작가다. 한·중 국제미술교류전, 대한민국 남부 현대미술제 등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서울인사미술대전 최우수상, 광주시 미술대전, 전남도 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특선 등 수상 경력이 있다.

정명섭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이순행 작가의 '시간-공간속으로' 전시회를 통해 도청 직원과 방문객이 해바라기의 밝고 따뜻한 느낌을 받아 일상에서 지쳤던 마음을 달래고 캔버스에 담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광주시 내일 수요인권강좌 김해원 부산대 법전원교수

광주시는 23일 오후 3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2019년 제16기 수요인권강좌를 개최한다.

'법과 인권'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다.

김 교수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김 교수의 저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강의'를 기초로 인권의 개념과 본질, 인권의 분류, 인권 실천의 방식과 한계, 국가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등에 대해 헌법적 차원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수요인권강좌는 시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인권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강좌다.

김정대 기자